

#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

프로그램명	2024 동계 단기 어학연수				
파견국가	Adelaide	파견기관	The University of Adelaide	파견기간	2025.01.06.~02.07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				기재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지원 사유	평소에 다른 나라의 문화나 언어 등을 배울 기회가 흔치 않는데 상명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가보고 싶었던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경험일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셨다.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었고, 항공권은 싱가포르 경유로 싱가포르 공식 홈페이지에서 학생 할인으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하였다. 여행자 보험은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하였다.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호주는 거의 카드가 사용 가능하므로 환전을 많이 할 필요는 없었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애들레이드 대학교는 남호주에 위치한 공립 연구 대학이다. 전 세계 대학 순위 상위 100위 안에 들만큼 명문 대학교이다.			
	교육 시설	교육 시설은 노스 테라스에 있는 메인 캠퍼스 외에 로즈 워시와 서바턴, 웨이트에 캠퍼스가 있고, 5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캠퍼스마다 단과대학이 따로 배치되어 있어 규모가 크다.			
	숙소 시설	숙소는 홈스테이를 활용하였다.			
	편의 시설	캠퍼스 중간 중간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과, 휴식 공간, 또 간단한 점심 등을 사 먹을 수 있는 매점들이 있었다.			
	기타 정보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보통 교통은 버스와 트램,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다니고 비용은 학생 할인으로 호주 달러로 1~2 달러 정도 하였다.
	식사 여건 및 비용	식사는 보통 홈스테이에서 먹었으며 외식할 때의 비용은 한국에 비해 값이 싼 편은 아니었다.
	관광지 정보	유명한 관광지로는 Henley Beach, Glenalg Beach, Hallett Cove 등 자연 명소등이 많이 있다.
	기타 정보	
교육 정보	강의 구성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정규 수업으로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등을 배우고 금요일은 특별 수업으로 자신이 선택한 수업을 한다.
	교육 내용	영어에서 기본 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위주로 배우고, 중간에 테스트와 발표를 통해 그동안 배웠던 것들에 대한 점검 시간도 갖는다.
	강사진	강사진은 반마다 다르지만 나의 강사 선생님은 Fernanda Garcia, Naomi Hunter 이셨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내가 선택한 수업은 Australian Studies, Popular Culture 로 애들레이드의 자연 명소와 유명한 곳을 방문하며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수업이었다.
	기타 정보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기타 정보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5주 간의 어학연수를 통해 공부와 시험을 통해 나의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적 지식도 넓어진 것 같아 좋았다.
	프로그램 장점	다른 여러 나라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고, 영어로 대화함으로써 영어의 자신감이 붙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낯선 나라라는 것이 두렵고 무섭겠지만, 프로그램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체험 등을 많이 참여하여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

프로그램명	2024 동계 단기 어학연수				
파견국가	호주	파견기관	adelaide of university	파견기간	2025.01.06.-2025.02.07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				기재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지원 사유	어학실력을 향상시키고 견문을 높이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프로그램 등록은 학교 공지를 보고 등록하였고, 샘물 포털에 들어가서 등록하였습니다. 결제는 진행담당자가 안내해주는 대로 결제했습니다.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는 Austraila ETA앱으로 발급했고 , 항공권은 시드니 경유 항공을 이용했습니다. 환승 장소가 분리되어 있음으로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국민은행 트래블 보험을 이용했습니다.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한 20만원 정도만 환전해 가고 트래블카드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거의 모든 장소에서 트래블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분들의 선물을 준비해 가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adelaide of university에서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교육 시설	깨끗하고 직원분들 모두 친절하십니다.			
	숙소 시설	어떤 홈스테이에서 머무르게 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호주가 물 부족 국가인지라 엄청 깨끗하지는 않고 , 씻는 것도 오래 씻으면 예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들 친절하시고 좋았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많아 만약 동물을 무서워 하신다면 사전에 미리 말을 해두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편의 시설	주로 애들레이드 시내에서 이용하게 되는데, colse나 wolworth,k-mart를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기타 정보	현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정보를 많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OT를 듣자마자 바로 학생증을 만들고 초록색(학생용) 교통카드를 만들기 바랍니다.
	식사 여건 및 비용	호주가 식비가 정말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홈스테이에서 많이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홈스테이에서 주로 샌드위치를 직접 스스로 만들어 다녀야 합니다.
	관광지 정보	해변가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브라이튼 비치와 헨리비치 특히 추천합니다. wild park도 추천드려요.
	기타 정보	더 오래 머물렀던 친구들과 대화하고 물어보다 보면 추천을 많이 해줄 것입니다. 외국 친구들과 같이 놀러가자고 해보는 것도 정말 추천합니다.
교육 정보	강의 구성	강의 하시는 내용은 쉬웠지만 사람들과 스피킹을 많이 시키시는 편입니다. 문법 수업 리딩 수업, 단어가 시험으로 나오며 포스터를 만들어 포스터를 설명하는 발표 시험을 봅니다.
	교육 내용	
	강사진	보통 두 명의 선생님이 진행하시며 금요일은 선택한 과목대로 배정받게 됩니다. 다들 친절하십니다.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을 수업에 잘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용히 있기 보단 말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스피킹 수업을 선택했고 대체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많이 토론했던 것 같습니다.
	기타 정보	애들레이드 대학교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은 시설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컴퓨터 같은 자원봉사자분들과 얘기해보는 수업이 있는데 정보를 많이 알려주십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궁금한게 있다면 한번쯤은 참여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wild park를 가는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기타 정보	샤워를 짧게 해야 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있으면 홈스테이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지 않다는 뜻을 간주됩니다. 알차게 어학연수 기간을 보내고 싶다면 저녁시간에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스피킹도 많이 늘었고 발표실력도 정말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장점	정말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달 동안 해외에서 살아 보는게 정말 쉽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방학 기간에 대학교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입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홈스테이에 불만이 많던 사람들이 많아서 홈스테이 선발을 더 신중하게 해주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어학실력이 부족해도 사람들 대부분 친절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많이 말을 해보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 친구들이랑 많이 말을 나눠보는게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 문화가 직설적으로 말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처받기 보단 피드백 정도로 이해하고, 불만사항이 있다면 직접 말을 해보길 바랍니다.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정말 후회 없는 경험입니다. 물론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하루 하루를 알차게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

프로그램명	2024 동계 단기 어학연수				
파견국가	호주	파견기관	University of Adelaide	파견기간	2025.1.4.-2025.2.9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				기재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지원 사유	타 국가 문화와 언어를 접하기 위해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출국 전 원화로 결제 함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공지에 따라 각자 개별로 진행함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현금은 소량만 환전하고 대부분 트레블 월렛으로 현지에서 계속 환전해서 사용함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University of Adelaide ELC			
	교육 시설	사용하는 층의 공간이 넓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대체로 쾌적했음			
	숙소 시설	홈스테이 환경은 공간이 매우 넓고 깨끗했으며, 화장실도 혼자 사용함. 하지만 샤워시간이 매우 제한적임			
	편의 시설	대학교 본 건물에는 다양한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지만 ELC 건물에는 별다른 편의 시설 없었음			
	기타 정보	학교 근처에 쇼핑몰, 관광지, 해변 등이 가까워 학교 끝나고 가기 편함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학생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일반 교통카드보다 훨씬 싸게 이용이 가능함. 환승하면 요금이 따로 나가지 않음. 하지만 한국보다는 교통비가 비쌘
	식사 여건 및 비용	외식 비용이 비쌘.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사면 싸지만, 레스토랑의 경우 한국의 1.5배는 됨
	관광지 정보	런든 몰, 글레넬그 비치, 보타닉 가든 등 학교에 인접한 관광지가 많아 관광하기 편했음
	기타 정보	버스 배차간격이 넓어 주말 저녁의 경우 시티에서 홈스테이까지 가는데 매우 오래 걸렸음
교육 정보	강의 구성	금요일은 수업이 다르고(호주 문화 수업, 토플 수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수업 등) 월-목에는 레벨별로 수업을 진행함.
	교육 내용	문법, 읽기, 쓰기 등 다양한 파트 별 수업을 진행함. 중간에 게임 형식의 수업도 여러번 진행함.
	강사진	월-목 클래스에서는 두분이 번갈아가며 수업하셨고 금요일에는 또다른 분이 수업하심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일주일에 한 번정도 볼링을 치거나 카페를 가거나 하는 모임 활동이 있었는데, 참여하여 다른 나라 친구들과 친해지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기타 정보	수업이 없는 주말이나 휴일에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에도 (시드니, 멜버른 등) 학교에 보고해야함.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학교에서 주최하는 볼링데이, 카페 데이에 참여할 때, 볼링의 경우 무료였고 카페는 본인의 음료 값을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지불했었다.
	기타 정보	흥미가 없는 활동의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야외에서 하는 활동의 경우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영어 실력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늘진 않았지만, 듣기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호주 악센트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프로그램 장점	개인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아닌 단체 프로그램이었기에, 학생들끼리 현지 정보나 팁들을 공유하며 단기간에 해당 나라를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어 좋았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레벨테스트 첫 화면에 난이도를 고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선택에 따라 배정 클래스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난이도 설정을 없애면 더 정확한 테스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호주는 심각한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홈스테이에서 샤워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매우 많다.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호주 사람들은 아침을 빨리 시작하고 저녁에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밤늦은 시간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또한 메인스트리트 상점, 음식점들도 보통 5시면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은 곳을 계획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연수 기간에 호주의 날이 겹쳐 시드니 여행을 갔었는데,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이 기간에 시드니 여행 하는 것을 추천한다.

#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

프로그램명	2024 동계 단기 어학연수				
파견국가	호주	파견기관	Adelaide University	파견기간	2025.01.06.-2025.02.07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				기재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지원 사유	지금까지 배운 영어 실력을 토대로 해외에 나가 영어를 사용해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음.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학교에서 안내 메일이 오면 어떤 순서로 연수를 준비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줌. 등록금의 경우 해당 대학의 안내에 따라 해당 대학 홈페이지 결제창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함.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모두 개인이 신청, 구매해야하며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외결제 가능한 카드가 필요함. 항공권은 구매 시기와 항공사, 플랫폼마다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사는 것이 중요함. 또한 애들레이드는 한국에서 가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중국, 싱가포르, 호주 내 도시를 통해 무조건 1번 이상 경유해야 함. 연수 기간동안 여행자 보험을 쓴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만약을 대비해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알맞은 것을 선택하길 권함.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현금을 쓸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현금 환전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우리나라 시장 느낌의 마켓을 방문해도 모두 카드 결제가 가능함), 분실을 대비해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여분으로 가지고 갔음. 홈스테이에 모든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한 세면용품과 옷 등만 챙겨가면 충분함.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애들레이드 대학에 속해 있는 영어 교육 기관			
	교육 시설	본 캠퍼스가 아닌 5분 정도 거리의 빌딩에서 수업을 진행함. 본 캠퍼스와 수업 장소인 ELC 건물 모두 쾌적하고 편안했음.			
	숙소 시설	호주 어학연수의 경우 학교 기숙사가 아닌 홈스테이에 머무름. 홈스테이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이 침대, 옷장, 책상이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것 같으며 홈스테이 시설에 대해서는 불만을 들어본 적이 없음.			
	편의 시설	대학 내에 식당, 기념품 가게, 교통카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곳, 도서관, 헬스장과 함께 24시간 보안 팀이 상주해계심. 학교가 넓고 깨끗한 편.			
	기타 정보	야외에서 밥이나 간식을 먹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돗자리, 물티슈 등을 준비해 다니면 아무 잔디 위에서나 쉬기 편안함.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학생증을 발급받으면 28일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검문원 분들이 계셔서 불시 검문 시 카드 태그를 안 했거나 학생증이 없으면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자세히 안내받으니 늘 학생증을 함께 챙겨서 다녀야 함. 교통카드 구매 비용과 28일이 지난 후 일주일 정도 충전으로 사용한 총 금액은 7만원 정도인 것 같음. 어느 정도로 돌아다니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금액 차이가 큼.
	식사 여건 및 비용	대부분은 홈스테이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으며 지냄. 점심은 싸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홈스테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주시거나, 도시락을 내가 싸는 경우로 나뉨. 식당에 방문하면 한끼에 1인 기준 2만원 이상을 지출해야하는 경우가 많음. 외식 물가는 비싸지만 마트에서 재료를 구매해 요리하는 경우는 싼 편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음식 관련 지출 비용이 크게 다를 듯함.
	관광지 정보	바다와 야생 공원이 유명하며 5주 동안 지내면서 애들레이드에서 유명하다는 모든 곳은 갈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넉넉하고 도시가 크지는 않음. 관광지마다 다른 매력이 있으니 모두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함. 그러나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거리가 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홈스테이 분들 차로 함께 방문하거나 다른 친구의 홈스테이 분의 차를 얻어 타고 가야 편한 경우가 많음. 대개 차로는 20-40분 이내에 모든 곳을 갈 수 있지만, 대중교통으로는 머물렀던 홈스테이 집 위치 기준으로 1시간 30분이 평균이었음. 그러나 아무리 오래 걸려도 정말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기 때문에 전혀 힘들거나 후회되지 않는 경험이었음.
	기타 정보	버스의 노선이 다양하지 않고 원래 도착 시간보다 2분 일찍 오거나 10분 늦게 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학교를 갈 때는 일찍 나가는 것을 추천함.
교육 정보	강의 구성	월-목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수업이 하루에 하나씩 진행되고, 금요일은 자신이 희망하는 교실의 수업에 배정됨. 그러나 금요일 수업은 무조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는 없지만 대개 원하는 교실에 배정받는 것 같음.
	교육 내용	매우 쉬운 영어로 천천히 이야기해주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업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짐. 시험도 배운 내용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음. 만약 내가 웬만한 영어 문법을 다 알고 있고, 영어 영화를 자막없이 어느정도 볼 수 있는 상태라면 수업이 너무 쉬워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음.
	강사진	월,화 수업이 강사 A분이었고, 수,목 수업이 강사B, 금요일 수업이 강사C분이었음. 총 세 분의 선생님을 만났는데 모두 친절하시고 영어가 틀리더라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주심.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에 다른 외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활동들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주는데 자신이 다양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신청하기를 권함.
	기타 정보	시험을 포함해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종이를 꽤 나누어주시기 때문에 종이를 정리할 수 있는 파일 하나 정도는 들고 가기를 추천함.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학교에 내는 등록금 외에 지출하는 비용은 개인별로 천차만별이라 생각함.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밥을 홈스테이에서 해결했고, 주말에는 놀러 나가 최소 1끼의 밥을 사먹었음. 개인적인 쇼핑을 포함해 5주동안 총 100만원 이하로 사용했음.
	기타 정보	

<p>프로그램 참가 결과</p>	<p>프로그램 성과</p>	<p>영어 강의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영어로 말하거나 에세이와 같은 글을 쓸 일이 없었는데 학교 수업을 5주 동안 들으면서 매일 하다보니 짧은 시간 동안 실력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어도 자신감은 향상되었음.</p>
	<p>프로그램 장점</p>	<p>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좋았음. 또한 대부분이 토론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p>
	<p>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p>	<p>오후 수업이 있는 날은 수업 전에 시간을 내어 놀기가 어려우며, 수업이 끝난 시간에는 웬만한 가게가 문을 닫아 할 수 있는게 매우 제한적이었음. 일주일에 오전 수업 세 번, 오후 수업 두 번이었는데 모두 오전 수업을 진행하는게 더 나을 듯함.</p>
<p>기타 사항</p>	<p>기타 참고사항</p>	
	<p>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p>	<p>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히고 싶다면 가는 것을 추천함. 가기 전부터 가서 지내는 동안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면서 5주가 지나면 딱히 무서운 것이 없어짐. 방학 때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고민되더라도 무조건 신청이라도 해보길 추천함. 간 사람 중 그 누구도 후회하지 않았음.</p> 

#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

프로그램명	2024 동계 단기 어학연수				
파견국가	Australia	파견기관	Uni of adelaide	파견기간	1/6~2/9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				기재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지원 사유	제2외국어 영어에 대한 흥미가 부족하고 이를 해결하고싶어서 지원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프로그램이 확정나고 학교에서 메일로 링크가 오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새로 한 후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합니다.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출국 2달전 혹은 1달전에 예약하면 조금더 싸게 가능합니다. 추가로 경유를 할 경우 비행기값이 저렴해지지만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트레블월렛을 이용한 카드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금이 거의 필요없습니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University of adelaide			
	교육 시설	학교 본관이 아닌 학교 근처의 건물을 이용합니다.			
	숙소 시설	홈스테이를 이용하였기에 숙소에 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편의 시설	학교 캠퍼스내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한달 기준 60달러정도 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학생증을 제시하면 학생할인을 받아 45달러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타 정보	없습니다.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학생용 교통카드 사용시 대중교통 탑승시마다 약 1.3달러 혹은 한달 정기이용권 4만원 이용.
	식사 여건 및 비용	마트같은 시설 이용시 저렴하지만 식당이용시 끼니당 최소 15달러정도가 들어갑니다.
	관광지 정보	Henley beach, Glenelg beach등이 있습니다.
	기타 정보	지역에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참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정보	강의 구성	각 클래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문법을 배우고 스피킹 리스닝을 배움
	교육 내용	used to, would 의 경우 비슷하지만 어떤 경우 차이가 있는지와 같은 비슷한 뜻의 상황마다 사용이 다른 문법을 배웠음.
	강사진	주에 두명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금요일 special class로 분반마다 정규 수업 이외의 수업을 함. 필자의 경우 Australia culture class였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호주의 관광지를 갔었음.
	기타 정보	x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기타활동  
정보

기타 정보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영어를 말함에 있어 무서움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꺼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외국인들과 생활 대화를 함으로써 이점이 많이 개선됨. 비록 100%를 전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되었음.
	프로그램 장점	프로그램에서 같은 국가의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타국의 사람들과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을 공유할 기회가 생긴다는것에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홈스테이 패밀리에 대한 사전정보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국 이전에 조금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림이나 기타 공지는 메일과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알려주시기는 하지만 이에 생기는 궁금증이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질문을 하고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는데 매우 오래 걸립니다. 이점은 반드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고 같이 노는것도 좋지만 이왕 해외에 나갔으니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쩌면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타국에서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들과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은 이 기회가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

프로그램명	2024 동계 단기 어학연수				
파견국가	호주	파견기관	The University of Adelaide	파견기간	2025.01.06.~2025.02.07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				기재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지원 사유		영어 사용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고 싶었기 때문. 또한 글로벌 영어 감각을 익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타국 사람들과 소통하며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학교 공지사항의 '동계 어학연수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 어학연수 담당자분께서 메일과 단체 카톡방을 통해 프로그램 등록 정보를 올려 주셨고, 절차에 따라 호주 원화로 결제 진행함.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 전자비자 ETA로 신청 및 발급 (하루 내에 가능) 항공권: Skyscanner 어플을 통해 적절한 가격의 항공권으로 구매 (경유 1번) 여행자 보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최저가 보험으로 가입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 현금보다는 카드 사용할 일이 많다고 하여, 트래블월렛 카드를 주로 사용했고 주거래 은행에서 최소 환전 금액인 \$180 환전. 준비물: 선크림과 선글라스(자외선 매우 강함), 해외용 어댑터, 수영복, 텀블러, L자 파일과 여분의 펜 등.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The University of Adelaide
	교육 시설	English Language Centre at The University of Adelaide 본교에서의 수업은 첫날 OT와 4주 차 금요일에만 이뤄졌고, 대부분 위 어학원 건물에서 수업이 진행됨. 본인 레벨에 따라 반 배정이 이뤄짐.
	숙소 시설	홈스테이
	편의 시설	발급한 학생증으로 도서관, 프린터기 등 이용 가능, Wifi 무료 이용. 본교 내 Central Hub 건물에 자판기와 식당 등 취식 가능한 공간과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음.
	기타 정보	첫날 OT에서 본교와 주변 근거리를 같이 탐방하며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면 좋음.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Metro card concession 28일권을 추천해 주심.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 다만, 필자는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서 홈스테이를 지냈기에 도시 내에서 무료인 Tram을 이용했으며, 카드를 따로 구매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충전해서 쓰는 방식을 이용함.
	식사 여건 및 비용	식사를 주로 홈스테이 가족분들이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식비를 절약할 수 있음. 어학원 근처가 시내여서 다양한 식당이 존재함. 외식 비용은 한국보다 비싼 편이기에 인당 최소 20\$ 이상 요구됨.
	관광지 정보	여러 해변(Henley, Glenelg, Grange, Semaphore, Hallett Cove), 보타닉 가든, 한도프 마을, Beerenberg 딸기 농장, 클리랜드 야생공원, State Library 등
	기타 정보	금요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점이 오후 5시쯤까지 운영함. 가게마다 차이는 있지만 금요일에는 늦게까지 운영하는 편임. 호주 기준 여름인 경우, 해가 긴 편임. (일몰이 대략 밤 8~9시) 홈리스 분들이 많은 편임. 저녁에 대중교통 이용 시, 홈리스 분들이 꽤 많이 탑승해 있으니 주의하길 바람.
교육 정보	강의 구성	Speaking, Reading, Listening, Writing 수업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됨. 금요일은 스페셜 수업으로, 호주 문화를 경험하는 활동을 함.
	교육 내용	National Geographic 웹사이트를 통해 E-book 교재를 사용했으며, 다양한 문법을 배워 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나눔. 특정 주제에 대한 에세이 쓰기, 관광지 소개 포스터 제작 및 발표 등의 평가 존재.
	강사진	3B Red 반: Fernanda Garcia & Naomi Hunter Australian Studies & Popular Culture: Regina Campbell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매주 금요일 Specialization class
	기타 정보	어학원에서 나눠주는 학번과 아이디, 비밀번호를 사용할 일이 많으니 잊어버리지 않도록 메모에 기입 추천. 유인물을 많이 나눠주기 때문에 L자 파일과 여분의 펜을 챙겨가길 바람.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학교 프로그램: Cafe Tour, Cleland wildlife Park, Aussie pub meal, Strike bowling, Farewell dinner 개인 여행: 시드니 2박 3일 (비행기 왕복 비용: 약 28만 원)
	기타 정보	5주 프로그램 기간 내에 ‘호주의 날’ 국경일이 월요일인 것을 활용하여, 주말 포함 2박 3일로 시드니 개인 여행을 다녀옴. 주말이나 공휴일을 적극 활용해서 먼 곳의 관광지 다녀오는 것을 추천.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실생활에서의 활용 능력이 크게 증가했음. 특히, 현지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과 발음을 익혔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넓힐 수 있었음. 또한, 자율적 학습 태도와 낮은 환경에서의 적응력이 강화되어 향후 학업과 커리어에도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프로그램 장점	정규수업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홈스테이 가족과의 소통, 타국 친구들과의 교류로 글로벌 인연을 만들고, 영어 환경에 쉽게 적응하여 실생활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좋았음.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호주에서 학습과 문화 체험을 병행할 수 있어 좋았음.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호주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편은 자유롭게 예약하되, 가는 항공편은 단체로 예약하여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을 것 같음.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전자비자 ETA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여권 정보가 필요하기에 여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발급하기를 추천함. 호주는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샤워 및 물 사용 시간을 5~10분 내로 권장함.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적극적으로 현지인 및 타국 친구들과 소통하며 영어 사용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수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최대한 참여하여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는 것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출국 전, 온라인 zoom과 첫날 OT에서 기본적인 생활과 문화적 차이를 알려주시니 현지에서 적응이 훨씬 수월할 것이며,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면 좋아요! 그리고 5주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니, 최대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귀중한 경험과 추억 쌓으시길 바라요 :)

#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

프로그램명	2024 동계 단기 어학연수				
파견국가	Adelaide, Australia	파견기관	University of Adelaide	파견기간	2025.01.06.~2024.02.07.(5주)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				기재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지원 사유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회화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개별 진행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개별 진행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개별 진행 (필기도구, 노트북 및 패드, 생활용품)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University of Adelaide
	교육 시설	쾌적하다
	숙소 시설	홈스테이 이용
	편의 시설	대학교 근처에 번화가가 있어 필요 물건 쉽게 구매 가능
	기타 정보	강의실에 정수기 구비되어 있음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교통카드 구매 추천(28일권)
	식사 여건 및 비용	홈스테이에서 삼시세끼 챙겨주어 별도의 외식 및 간식 비용 필요 일부 홈스테이에서는 수도물을 식수로 활용 (물냄새가 나서 물을 구매해서 먹는 참가자를 보았음)
	관광지 정보	Beach 추천 (헨리 비치, 글레넬그 비치, 브라이턴 비치) 시장 추천 ( 센트럴 마켓, Adelaide Farmers' Market) 스포츠 문화 (ATP ADELAIDE_테니스 경기, COOPERS STADIUM_축구 경기) 기타 (HOYTS_영화관, Adelaide ART Center) 시내 근교 동네 (한도프_스트로베리 팜, 고르게 와일드라이프 공원_코알라 안기, 돌고래 보호구역)
	기타 정보	
교육 정보	강의 구성	듣기, 말하기, 쓰기, 문법으로 구성
	교육 내용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목 수업을 영어로 진행
	강사진	다양한 출신의 호주시민 강사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외부활동을 좋아한다면 CULTUER 과목 추천 (금요일마다 정규수업 외 수업이 진행됨)
	기타 정보	2주차, 4주차에 시험이 있으니 확인하기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기타 정보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짐
	프로그램 장점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해외 수업과정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 필요 (EX. 교재 어플, TEAMS 등)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핸드폰 로밍은 현지에서 유심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함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추가적으로 여행을 생각하는 참가자들은 5주차 활동 모두 끝난 후 계획하는 것을 추천 다른 도시들에 비해 작지만 5주 동안 할 것이 많으며, 수업에 있어서도 얻어가는 것이 많음. 또한 멜버른 및 시드니에 비해 좋은 환경들이 많음 (개인적으로 비치, 자연환경이 그러했음)

#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

프로그램명	2024 동계 단기 어학연수				
파견국가	호주	파견기관	상명대학교	파견기간	2024.01.04~2024.02.07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				기재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지원 사유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애들레이드 대학교 사이트를 통해 결제했다.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호주 비자 발급 (인터넷으로 약 3분 소요), 항공권은 최대한 일찍 샀다. 경유를 하면 훨씬 가격이 절약된다.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현금은 10만원 정도 미리 환전했지만 딱히 쓸 일은 없었다. 트레블월렛 카드를 발급해 주로 사용했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애들레이드 대학교 캠퍼스는 무척 크고 좋지만 어학연수 교육은 꽤 떨어진 다른 건물에서 진행되어 아쉬웠음. 그러나 학생증을 발급해줘서 수업 이후 학교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음.
	교육 시설	입학 테스트로 수준 별로 반을 나눠 잘 진행됐다고 생각함.
	숙소 시설	X
	편의 시설	정수기가 있어서 텀블러를 들고 다니길 추천함
	기타 정보	본교 도서관 자주 이용하세요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메트로카드 정기권을 학생용으로 구매해 기간 내내 트램과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시티는 버스가 자주 오지만 집 근처는 늘 시간표를 확인했음
	식사 여건 및 비용	웬만하면 홈스테이 가족 분이 해주셨지만 뭘 사먹을 때는 항상 만 오천 원 이상은 잡아야함.
	관광지 정보	바다도 가깝고, 학교가 시티 안에 있어서 수업이 끝나고도 돌아다니기 좋았음.
	기타 정보	호주는 웬만한 시설들이 5시 이전에 문을 닫아서 빠르게 쇼핑하고 놀러다녀야했다.
교육 정보	강의 구성	읽기, 말하기, 쓰기, 문법 등을 배웠고 금요일에는 스페셜 레슨이라고 각자 선택한 과목을 듣게 함
	교육 내용	너무 쉬웠던 문법을 제외하고 적당한 난이도였다고 생각한다.
	강사진	세 분 다 무척 친절하시고 잘 가르쳐주셨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금요일에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란 수업을 들었는데 대부분 모둠원이랑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알 수 있어 좋았다.
	기타 정보	단순한 소통을 할 때도 영어를 사용해야하니 교육 측면에서 무척 효과가 좋았다.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특별한 경험이었다.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소고기 제외 전부 비싸다
	기타 정보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영어로 말할 때 두려움을 가지게 되지 않게 된 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영어로 소통하고 사귄 수 있었던 점, 하루종일 일상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니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영어로 먼저 문장이 떠오르는 경험이 생겼다.
	프로그램 장점	환경 자체를 바꿔 영어를 스스로 습득할 수 있어서 좋았다. 처음에는 호주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한국인이 너무 적어 걱정했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배우고 더 필사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에 들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애들레이드 관광지를 사전에 조금 더 알려주면 좋겠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정보가 거의 없다. 대학교 측으로 요청하면 설명해준다지만 사전에 여러 관광지를 알려주면 더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 처음으로 혼자 해외에 온 건데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다.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처음에 적응이 안 돼도 일단 최대한 많이 나가보세요. 언젠가부터 말이 들리고 말이 나오고 친구가 만들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추천합니다.

#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

프로그램명	2024 동계 단기 어학연수				
파견국가	호주(Adelaide)	파견기관	University of Adelaide	파견기간	2025.01.06.-2025.02.06. (약5주)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				기재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지원 사유	평소에 어학연수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다양한 국적 사람들과 영어로 대화하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호주에서의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학교 관계자 분이 보내주신 링크를 통해 기한 내에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결제하였다.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Australian ETA 비자 앱을 통하여 신청하였다. 항공권은 11월 초에 각자 결제하였고 인천-시드니-애들레이드(경유 1회)로 향하는 비행기를 이용했다. 여행자 보험은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을 이용하였다.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을 해가지 않고 트래블리 카드를 이용하였다. 본인은 일부 가게에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상 상황에 대비해 환전을 조금 해 가는 것을 추천한다. 햇빛이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선글라스와 모자,선크림은 필수로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또한, 물이 비싸기 때문에 텀블러를 가져가는 것도 추천한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Adelaide university와 English Language Centre에서 수업을 들었다. 시티 중앙에 위치하여 편리하였다.			
	교육 시설	ELC(English Language Centre) 11층에서 주로 수업을 들었다. 마지막 주차에는 학교에서 한 번 수업을 듣기도 하였다.			
	숙소 시설	홈스테이를 이용하였다. 방은 쾌적하고 넓은 편이라 혼자 시간을 보내기에 좋았다. 집과 학교의 거리가 버스타고 25분 정도로 가까운 편이어서 편리하였다.			
	편의 시설	학교 내에 있는 'Central Hub'에 cafe와 자판기가 있어 도시락을 먹으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도서관, 헬스장, 라운지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ELC내 화장실에 여성용품 배치, 학교 내 정수기, WIFI이용이 가능하다.			
	기타 정보	ELC 관계자 분들께서 모두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일반 카드보다는 metro card를 이용하면 비교적 싸게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Hub Central 옆에 있는 건물에서 초록색의 metro card를 구매하여 기후동행카드 처럼 28일 치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사 여건 및 비용	식사는 대부분 홈스테이에서 준비해준 음식을 먹었다. 내가 걸린 홈스테이는 식사 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샌드위치 혹은 샐러드라 주말에는 외부에서 음식을 많이 사먹었다. 한 끼의 비용은 20~30\$ 정도로 싸지 않은 편이다.
	관광지 정보	ELC 기준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은 Rundle Street, Central market, Botanic garden, Mortlock library, River Torrens 등이 있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갈 수 있는 곳은 Glenalg beach, Henley beach, Hallet cove, Hahndorf village (독일 마을), Barossa Valley Winery, Chocolate Factory, Cleland Wildlife park, Morialta Conservation park, Himeji Garden 등 다양한 명소와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많다.
	기타 정보	애들레이드는 땅이 넓어 원하는 곳을 가기에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홈스테이 분이 운전을 한다면 다양한 곳을 가볼 수 있다. 나의 경우 홈스테이 분이 Henley Beach와 한도프 마을을 차로 데려다 주셔서 편히 갈 수 있었다.
교육 정보	강의 구성	강의는 Listening, Writing, Speaking, Reading, Grammar로 구성되어있고 어느 한 편에 치우쳐지지 않고 적절히 섞여 있다. 오전 수업은 9시부터 1시까지 진행된다. 2시간 수업, 15분 쉬는 시간 다시 1시간 40분 수업으로 구성되어있다. 오후는 1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	주로 외국인 친구들과 토론 형식으로 수업이 많이 진행되었다. 선생님이 주제를 정해주고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영어로 작성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4주차에는 발표를 위한 포스터 만들기, 시험을 통해 평가가 이뤄진다. 금요일에는 자신이 선택한 프로그램을 들었다.
	강사진	월화수목 2명의 강사진 분들이 진행하였고 금요일은 다른 강사진 분이 진행하셨다. 강사진 분들은 모두 친절하셨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해주셨고 학생들을 배려해 주며, 열정적이고 재밌게 수업을 해주셨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금요일에는 자신이 선택한 프로그램을 들었다. 나의 경우 Australian Culture 수업을 선택하여 호주의 문화에 대해 체험해 볼 수 있고 부담없이 듣기 좋았다.
	기타 정보	OT, City Tour, Cleland Wildlife Park, Cafe Tour는 상명대생만 참여하는 활동이 있다. 대학교 측에서 열리는 Bowling, Pub meal 등은 소정의 비용을 내면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애들레이드에서 한 달 동안 150만원 정도 지출한 것 같다. 홈스테이 식사가 잘 맞지 않아 식비로 주로 지출하였고 수업 전후로 남은 시간 돌아다니며 활동 비용을 많이 썼다.
	기타 정보	친구의 홈스테이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었고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다. 서로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각 홈스테이의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처음에는 영어를 말로 내뱉는 것이 어려웠는데, 홈스테이 가족과 외국인 친구들과 영어로 많은 대화를 나누니 점점 귀가 트이게 되고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스스로 없이 하게 되는 것을 느꼈다.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진 않았지만 외국인과의 소통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나중에는 홈스테이 가족이 첫째 날과 달리 영어 실력이 늘었다면서 칭찬도 해줬다.
	프로그램 장점	학교에 가기 전 레벨테스트를 통해 반을 배정 받고 영어실력이 비슷한 친구들과끼리 수업을 해서 난이도가 적당했으며 다른 나라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영어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장점이었다. 또한, 홈스테이 가족과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호주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배우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홈스테이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식사가 더 다양한 메뉴와 건강한 식사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매일 같은 종류의 음식이 반복되다 보니 식사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홈스테이 프로그램 중간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선점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홈스테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애들레이드는 가끔씩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반팔, 긴팔 등 여벌의 옷을 충분히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처음 어학연수 지원할 때, 낯선 나라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한 달 동안 지내보니 호주에서의 시간들이 정말 값지고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영어는 실제로 많이 사용해볼수록 향상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홈스테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기를 바랍니다. 이때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과 사귀면서 상호작용한 것이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편견을 가지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한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고 소중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오전 수업 후나 오후 수업 전에 애들레이드를 돌아다니며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습하지 않아 외출하기에 좋았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은 정도로 꿈 같은 한 달이었습니다.

#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

프로그램명	2024 동계 단기 어학연수				
파견국가	호주	파견기관	university of Adelaide	파견기간	2025.1.6.-2.7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				기재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지원 사유	평소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특히 호주에서 영어를 배우고 싶었던 꿈이 있어 이번 프로그램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게 됨.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5,590불, 한화 약 530만원 정도를 신용카드로 결제함. (환전 수수료도 내야함)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 Australian ETA 앱을 깔았음 (아이폰 기준). 발급 비용은 한화 약 2-3만원 정도 들었음. 항공권: 싱가포르 항공권으로 왕복 한화로 약 180만원 결제함 여행자 보험: 신한 여행자보험 약 4만원 정도 결제함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은 환율이 쌀 때 트레블 월렛 카드로 미리 환전해두었고, 결제함. 혹시 몰라 공항에 비자 서류 사본을 출력해갔으나 필요가 없었음. 카드 또한 여러 개를 가지고 갔으나 트레블 월렛카드가 가장 쓰기 편했음(교통카드로도 사용 가능함, 급할 때 사용가능).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애델레이드 대학교 소속 ELC에서 수업을 들음.			
	교육 시설				
	숙소 시설	홈스테이를 이용함			
	편의 시설	캠퍼스 내 허브센터에서 식사 가능, ELC 내에 정수기가 있으니 텀블러 챙겨다니는 것을 추천.			
	기타 정보	캠퍼스가 굉장히 큼. 학생증으로 학교 시설 대부분을 누릴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함.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28일 정기권 메트로 카드 사용함. 한화 약 5-6만원 정도 들었음. 웬만한 곳은 버스, 트램을 탈 수 있음. 트레인도 있음. 개인적으로 버스보다 트레인이 타기 쉽다고 생각. 시내에서 트램은 공짜임 ; 트램 열차 앞 버튼 누르고 그냥 타고 내리면 됨. 주의점은 버스 지연이 자주 되므로 구글맵을 너무 믿지는 말길 바람. (nextthere이라는 호주 교통앱 추천)
	식사 여건 및 비용	도시락을 개인적으로 싸가거나 쉬는 시간에 나가서 사 먹었음. 매일 사먹는 것은 추천하지 않음. 한 끼에 15-25불 정도 하는데, 매일 사 먹기엔 비싸기도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쉬는 시간 안에 다 먹을 수가 없음.
	관광지 정보	한돌프(Hanhdorf), 보타닉 가든(Botanic garden), 아트 뮤지엄이나 주립 도서관, 다양한 해변 등 즐길 거리가 많음.
	기타 정보	무단횡단을 정말 많이 하니 차를 조심하세요. 버스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버스 기사님께 손 인사하는데, 어색해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홈스테이 생활에서 어색해하지 말고 먼저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친해지세요!
교육 정보	강의 구성	월-목요일(본인 레벨반)은 주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수업, 그리고 금요일에는 본인이 선택한 특별반 수업으로 짜여져 있음.
	교육 내용	정규 수업: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수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반은 계속 모듈별로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 반 친구들과 영어로 스피킹 하는데 중점을 둬. 금요일 수업: IELTS RED 반 수업 선택함. 아이엘츠에 대한 이해와 시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등을 배움. 마지막날 아이엘츠 모의 시험을 봄. 하지만 부담은 없었음.
	강사진	나의 경우 정규 수업과 금요일 특별 수업 모두 Saeed가 맡았음. 내 기준 elc에서 최고의 선생님이셨음. 다른 강사분들도 가끔 이야기할 일이 생겨서 이것저것 질문하면 다 잘 받아주셨음.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금요일 수업은 다음과 같음 1. 호주 문화 2. 아이엘츠 옐로 3. 아이엘츠 레드 4. 커뮤니케이션 스킬 호주 문화는 거의 대부분 야외 수업으로 이루어져있음. 주로 아델레이드 내 관광지에 가는 것 같았음. 아이엘츠 옐로, 레드는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있던 레드반에서는 아이엘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모의시험들을 봄. 커뮤니케이션 스킬 수업은 게임과 토론 등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음.
	기타 정보	학교에서 주에 1번 정도 수업이 끝나고/시작 전에 운영하는 1-2시간 짜리 프로그램이 있음(ex. 볼링, 커피 타임). 무료이거나 10불 정도 내면 참여할 수 있으니 가는 것을 추천.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
	기타 정보	홈스테이에 관한 얘기를 짧게 하고 싶다. 나는 홈스테이에서 좋은 가족이 뵈혀 무난하게 학교를 다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조금 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학교에 얘기하고 최대한 빠르게 홈스테이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언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실력이 확 오르지 않는지만, 하루하루 새로운 단어, 문장들을 배우면서 확실히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또 여러 각국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얻음. 또 단지 영어가 아닌 나 자신도 여러 생각들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얻었음.
	프로그램 장점	영어권 문화와 외국인들에 대한 이상한 두려움이나 선입견이 사라짐. 또 리스닝과 스피킹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함. 수업 자체가 토론과 자신의 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형식인 것도 영어 실력을 많이 늘릴 수 있어 좋았음.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프로그램이 너무 짧은 것이 아쉬웠음. 아예 방학 기간 전체를 두고 어학연수를 갔다면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됨.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햇빛이 정말 강함. 5주밖에 없었지만 팔에 선이 생겼음. 타는게 싫다면 썬크림을 많이 가지고 와 매일 바르는 것을 추천함. 또 건조하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음. 그래도 텀블러는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을 추천.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단 한번도 지원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 지원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붙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에 가서 영어를 많이 배우고 싶다면 한국인보다는 외국인, 호주 현지인들과 친해지는 것을 좀 더 추천합니다.